

科總 第9回 定期總會 盛了

北傀의 武力挑發行爲를 糾彈

73年度決算·새해豫算도 無修正通過

○……第9回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定期總會와 記念學術講演會가 2月27日 賀……○

○……易會館강당에서 내외귀빈 다수참석한가운데 盛大하게 舉行됐다……○

이날定期總會는 「綜合에너지 開發에 關한 研究方向」(尹容九 韓國原子力研究所長)과 「大陸棚 開發과 國際法上的 問題點」(李漢基 서울大教授)에 대한 記念學術講演會가 있은다음 진행했는데 始終 진지하게 案件을 다뤘다.

더우기 이날 定期總會에서는 北傀의 武力挑發行爲를 糾彈하는 聲明書를 決議, 科學 技術人들의 總和와 團結의 一面을 誇示하기도 했다.

金允基會長은 이날 閉會辭를 通해 「우리 科學 技術人은 艱박한 현실에 對處하기 爲해 叢生的이고 奉仕의 精神을 발휘하여 總和를 이루어야 한다」고 強調하고 「에너지와 資源의 開發과 調查研究에 集約된 努力이 傾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會長은 또 「새마을 技術奉仕活動과 政府가 本格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重化學 工業의 育成 發展에다 科學技術人의 總和된 努力이 提供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崔亨燮科技處長官은 致辭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難關과 急激한 國內外變化에 賢明하게 對處해나가기 爲해서 過去 어느때보다 科學技術人의 總和된인 團結과 努力이 要請되고있다」고 말하고 「9個星霜의 年輪을 쌓은 韓國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의 使命과 役割은 더욱 重且大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崔長官은 또 『그동안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여러가지 여건이 如意치 못한 가운데 活潑한 學會活動을 벌였고 새마을 技術事業에서 좋은 成果를 올렸으며, 政府에 對해서는 여러번 傾聽할만한 建議를 하는등 자못 活潑한 業績을

쌓았음을 높이 評價하고 있다』고 致賀했다.

이어서 有功者에 대한 感謝牌 수여가 있었는데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金允基會長은 科總센터 健立에 物心兩面으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은 朴忠勳 貿易協會會長과 襄德鎭 대한 방직협회회장에게 각각 감사패를 授與 이들의 功勞를 높이 致賀했다.

式順에따라 趙成虎監事의 監查報告에 이어 案件심의에 들어간 이날 總會는 73年度의 決算報告를 異議없이 審議通過시켰다.

이어서 李東準事務總長으로부터 74年度 事業計劃및 豫算說明을듣고 심의에 들어가 이를 萬場一致로 無修正通過시켰으며 北傀蠻行을 糾彈하는 聲明書를 採擇했다.

傘下 127個 學會및 團體 會員의 共同名義로된 이 聲明書는 먼저 洪文和副會長이 우렁찬 목소리로 朗讀을 끝내자 場內가 떠나갈 듯한 全員一致의 拍手로 贊同採擇된 것이다.

決 議 文

우리들은 最近 우리 漁船을 擊沈하고 良民을 虐殺및 拉致한 北傀의 反民族의 非人道的 蠻行을 全國 127個 科學技術團體의 總意로서 糾彈함과 同時에 拉北漁夫의 即刻送還과 아울러 相互不可侵條約의 締結을 提議한 우리의 民族의 要求를 早速히 受諾할 것을 促求한다.

1974年 2月 27日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員團體 一同